

가정복지사 제도 도입의 필요성과 역할

김 양 회 (중앙대학교 인간생활환경학과 교수)

I. 서 론

우리나라의 가족제도는 산업화 이후 구조와 기능, 가치에서 많은 변화가 있었다. 핵가족화, 출산율의 감소, 전통적 가족기능의 상실, 여성의 사회진출, 남녀평등주의, 개인주의의 대두 등은 가족을 과거보다 자유롭고 융통성 있게 규정하도록 한 반면 이혼율의 증가, 청소년 비행, 가족성원들간의 세대차 및 갈등 등의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 현대의 가족문제가 여러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더라도 가족은 개인과 사회에 여전히 중대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가족은 개인의 전 생애에 걸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고, 일차적인 사회화 기관이므로 가족이 처한 위기는 개인과 사회 그리고 국가가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할 영역이 되었다. 그러므로 가족문제는 개인적 대책과 함께 국가의 정책적인 대안들이 요구되는 사회적 관심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지역사회와 국가기관은 가족이 대내적·대외적 가족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하고, 가족 위기를 극복하여 사회의 기본단위로서의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교육적·예방적·치료적 차원에서 노력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정책적 차원에서는 개인이 아니라 가족을 하나의 복지 단위로서 고려하는 통합적인 관점에서 효율적인 가정복지체계를 수립하고, 행정적·제도적 차원에서는 가정이 적절한 사회적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가정문제를 예방함과 동시에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복지 서비스를 마련하여야 한다.

가정복지서비스를 실천하는 방안은 실천 현장의 마련, 현장에 적용한 서비스의 개발뿐만 아니라 서비스 전달 주체자를 필요로 한다. 가정복지사 제도는 가족에 대한 통합적인 관점을 갖고 가정생활의 전반적인 영역에서 발생하는 문제 해결과 삶의 질 향상에 접근할 수 있는 전문가에게 공인된 자격증을 부여하는 것이다. 가정복지사 제도는 효율적인 가정복지 체계의 수립은 물론 가족이 사회변화에 대처하고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복지 서비스 개발에 기여할 수 있다.

가정학은 가정생활을 대상으로 가정생활 및 그 환경과의 관계를 연구하고, 개인과 가정생활의 개선과 향상을 도모한다는 실천적인 특성을 갖고 있다. 이러한 학문적 배경을 지닌 가정학 전공자들

은 가정복지 전달자로 활동할 수 있는 충분한 교육과 훈련 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사회복지사, 생활지도사, 아동지도사, 심리치료사 등과 같은 전문적인 인력이 복지 관련 영역에 투입되는 것과 같이 가정복지 분야에서 가정복지사가 활동할 수 있는 방안과 근거를 마련하여야 한다.

본 고에서는 가정복지사에 대한 이해를 돋기 위하여 가정복지사의 개념과 영역을 정리하였고, 다음으로 가정복지사의 자격 기준 및 배출 현황과 기대효과를 살펴봄으로써 가정복지사 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가정복지사 제도가 도입된다면 어떻게 가정복지사가 활동할 수 있고, 전문 분야를 개척해 나갈 것인가에 관한 논의를 하였다. 마지막으로는 가정복지사 제도 도입과 정착을 위해 요구되는 제반 문제들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과제들을 정리하였다.

II. 가정복지사란?

가정복지사 제도에 관한 이해를 돋기 위하여 먼저 가정복지사의 개념과 역할을 살펴본 후에, 가정복지사가 추구하는 가정복지의 영역을 정리하였다. 다음으로는 가정복지사 배출현황과 가정복지사 제도의 기대효과를 통해 가정복지사 제도 도입의 필요성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였다.

1. 가정복지사의 개념 및 역할

가정복지사는 가정복지 서비스 즉, 가정생활의 과정에서 일상적으로 수행되는 가정의 기능이 보다 원활히 수행됨으로써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킴과 동시에 결핍되거나 상실된 가정의 기능을 회복 내지 치료하는 서비스를 전달하는 주체자이다. 가정복지사는 가정복지서비스와 프로그램을 필요로 하는 가정을 대상으로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업무를 수행한다.

첫째, 가정복지사는 진단의 역할을 수행한다. 즉, 대상가정의 현상, 문제, 질적인 향상이 필요한 내용 등을 조사, 분석, 진단(인적·물적 자원의 탐색과 배치, 처치 등), 그리고 점검할 뿐 아니라 문제해결과 삶의 질 향상에 필요한 자원 조달방법을 모색하고 대상 가정에 개입할 적절한 시기의 선정, 제공될 혹은 제공된 서비스를 분석하고 평가하는 역할을 한다.

둘째, 가정복지사는 개입의 역할을 수행한다. 즉, 가정복지사는 주기적으로 관내 대상 가정을 방문, 상담하는 과정을 통하여 요구에 가장 근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며, 필요한 경우 전문 기관으로 연계시켜줄 뿐 아니라 자원봉사자를 활용하여 가정과 개인과 개인을 연결시켜서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모색한다. 뿐만 아니라 가정복지사는 수요자들의 요구를 해당기관이나 정책에 반영하도록 하는 중개자의 역할을 한다.

셋째, 가정복지사는 가정생활교육자의 역할을 수행한다. 가정복지의 증진을 위해 필요한 지식을 전달할 뿐 아니라 필요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프로그램의 효과를 평가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또한 가정복지사는 문제를 경험하는 대상가정이나 개인에 대해 정보제공에서부터 상담에 이르는 상담자의 역할을 한다.

2. 가정복지사의 영역

가정복지사가 수행하는 가정복지서비스의 일차적 대상은 혈연을 기반으로 한 가족이지만 가정복지는 공공가정, 공동체 가정, 소집단 등에 이르는 가족이 수행했던 기능을 지지·보충·대체해주는 생활단위를 포함하는 개방성을 갖는다. 전통적인 가족 이외의 다양한 생활단위의 출현과 필요성은 현대사회와 가족이 과거와 달리 가족원에 대한 보호와 부양의 기능이 약화됨에 따라 가족의 기능을 보완하는 서비스가 새롭게 제공되어야 한다는 필요성에 의해서이다. 따라서 가정복지서비스는 가족 자체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제공되는 다양한 형태의 서비스 뿐 아니라 가정의 기능을 지지, 보충, 대체해주는 서비스까지를 포함하므로, 가정복지서비스의 대상은 확대된 개념의 가족 또는 가정성을 지닌 집단까지를 포괄하는 개념이다.

가정복지사가 가정복지 서비스에 접근하는 방법은 지금까지의 사회복지정책 및 서비스에서 대상별로 이루어진 것과는 차별화 된다. 기존의 가족복지 정책은 전체 가족을 고려한 정책적 배려는 없었으며, 가족복지서비스는 문제 중심적·사후 치료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보다 보편적이고 예방적인 성격으로의 변화 뿐 아니라 기존의 대상별 접근시에도 가족을 통합적으로 고려하는 관점으로의 변화가 가정복지사가 지니는 가정복지 서비스 개념의 특성이다. 결국 사회복지서비스와 가정복지사가 상호간에 배타적인 성격이기보다는 보완적 성격을 지니며, 같은 대상을 접근할 때도 가정복지사는 ‘한 단위로서의 가족과 그 가족의 가정생활의 향상’이라는 관점에 입각하여 이와 관련된 부문에 집중한다는 점에서 특징을 찾을 수 있다.

가정복지사가 제공하는 가정복지서비스의 성격은 전체 경제체제와 모든 사회성원에게 미치는 공공재(public goods)나 집단재(collective goods)로서의 본질을 지닌다(김명숙, 1995). 이와 같은 성격을 지니는 근거로는 가정을 노동력 재생산의 단위로 파악할 때, 이와 같은 재생산이 가족을 단위로 사적영역에서 이루어짐에도 불구하고 노동력이 상품생산을 위한 가장 핵심적인 생산요소이기 때문에 개별가족의 물질적·심리적 안정은 경제 체제 전체의 유지와 발전에 불가결한 조건이기 때-

문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본다면 가정복지서비스의 성격이 공공재이어야 한다는 것은 가장 기초적인 성격일 것이다. 그러나 가정복지서비스를 공공재로 한정할 경우 복지서비스의 우선 순위에 의해 가정생활의 질적 측면까지를 포괄하기에는 여전히 한계가 있기 때문에 가정생활의 질적 향상과 관련된 다양한 상품재까지도 가정복지서비스에 포괄될 때 보다 보편적이고 다양한 복지서비스의 제공이 가능해질 것이다.

3. 가정복지사의 자격기준 및 배출 현황

현재 가정복지 특별 위원회에서 규정한 가정복지사 자격증 취득을 위한 자격 이수 교과목은 <표 1>과 같이 제시되고 있다. <표 1>에서 보듯이 가정복지사의 자격 취득을 위해서는 복지기초 영역

<표 1> 가정복지사 자격이수 교과목

영역	과 목 명	대 체 과 목
복지 기초 (3)	가정생활복지론	생활과학의 이해, 인간과 생활환경, 가정학원론
	가족자원관리	가정관리학, 가정경영학
	가족학	가족관계학, 가족사회학, 가족과 사회, 현대가족의 이해, 현대가족론
	소비자학	소비자학의 이해, 소비자와 시장, 가정경제학
	아동학	아동발달, 청년발달, 영유아발달, 인간발달, 노인심리
	주거학	주거론, 주택론, 주거와 환경
	의복학	피복재료학, 섬유학개론, 의복재료 및 관리, 의류학개론, 의복재료학
복지 심화 (3)	영양학	고급영양학, 식품영양학, 기초영양학, 현대인과 영양
	생활설계	가정생활설계, 생활설계상담
	가사노동	가사노동이론 및 실습, 가정기기이론 및 실습
	아동복지	아동복지학, 아동복지론, 기족복지, 청소년복지
	보육학	유아교육개론, 유아교육과정, 놀이지도, 보육실습
	한국가족론	한국가족의 이해, 한국가정생활사
	노인학	노인복지, 성인노년학, 노인심리
	가계재무설계	가계재무관리, 가계투자론, 소비자와 금융, 가계복지론
	소비자의사결정론	소비자행태론, 소비자재무상담, 소비자상담 및 피해구제
	실내디자인론	실내디자인, 실내디자인연습, 주거공간디자인, 주택설계, 주택계획 및 실습
	주택관리	주거환경론(학), 주거환경위생, 주거관리론, 공동주택관리론, 공동주택설비
	의복구성	인체와 의복, 입체재단, 한국복식구성
	의류상품학	의상사회심리, 의류소비론
	의복과학	의복재료, 의복환경학, 의복관리
생애주기영양학	생애주기영양학	생애주기 영양, 생애발달, 특수영양학, 기초영양학, 영양과 발달
	식품위생학	식품위생 및 법령해설, 식품위생법규, 식품위생 및 법규
	영양교육	영양정보관리 및 상담, 영양상담, 영양교육 및 상담, 영양판정, 영양교육상담 이론 및 실습

영역	과 목 명	대 체 과 목
복지 용용 (2)	공공가정경영론 아동상담 가족상담 소비자교육 주택상담 피복관리 복식의장 식생활관리 및 실습 식사요법	공공가정론, 공공가정이론 및 실습, 공공가정경영이론 및 실습 부모교육, 아동행동연구, 아동지도, 아동행동관찰 가족치료, 가족상담 및 치료, 가족생활상담, 상담심리학, 상담이론 소비자문제연구, 소비자문제론, 소비자재무상담, 가계재무상담 주생활연구, 주거문제연구, 주택문제연구 피복정리(학), 의류관리, 의복정리(학), 의복관리 및 위생 패션디자인, 복식디자인, 패션일러스트레이션 식품학 및 조리원리, 식생활관리, 실험조리 및 식품개발, 문화와 식생활, 식사관리 및 실습 임상영양학, 식이요법, 식사요법 및 실습
	방법론 (1)	가정학연구방법론, 통계학, 아동가족조사법, 소비자조사법, 소비자연구방법론, 기타 조사연구방법론 관련과목
	실습 (1)	현장실습-영양사현장실습, 소비자상담실습, 소비자재무설계실습, 공공가정경영현장실습, 가족상담 실습, 가족생활교육 실습, 보육실습, 기타 현장실습

에서 3과목, 복지 심화 영역에서 3과목, 복지 응용 영역에서 2과목, 방법론 1과목, 실습 1과목을 이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영역별 과목 및 대체 과목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가정복지사는 가족 관계 및 가정관리 등의 가족 생활 전 영역과 복지관련 영역을 함께 다루고 있으며, 현장 실습을 통해서 가정복지사의 역할을 훈련할 수 있도록 하여 전문적이고,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하였다.

한편, 이러한 준비과정을 마치고 가정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한 이들의 현황을 살펴보면(표 2), 2000년 현재 총 2,785명의 가정학 전공자들이 가정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한 상태이며, 1급 자격증 취득자가 1,744명, 2급이 1,041명이다. 현재 배출된 가정복지사는 대학교육을 통하여 자격 취득을 위한 교육과정을 충실히 이수하였으며 가정생활 전반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현장에서의 실습이 이루어진 상태이므로 가정복지 서비스 전달주체로서의 준비를 갖추고 있다. 따라서 이들에게 국가 공인 자격을 부여하여 통합적·지속성·포괄성·보편성의 특성을 지닌 가정복지를 실천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야한다.

〈표 2〉 전국 가정학 전공자 중 가정복지사 취득자수 (단위 : 명)

구분	연도	1998년도		1999년도		2000년도		합계
급 수		2급	1급	2급	1급	2급	1급	
가정복지학과 출신		47	7	10	11	36	18	98
가정학 출신	107	537	350	581	566	533	1,023	1,651
합 계	107	584	357	591	577	633	1,040	1,744

4. 가정복지사 제도 도입의 기대효과

가정복지사가 제도 도입을 통한 기대 효과는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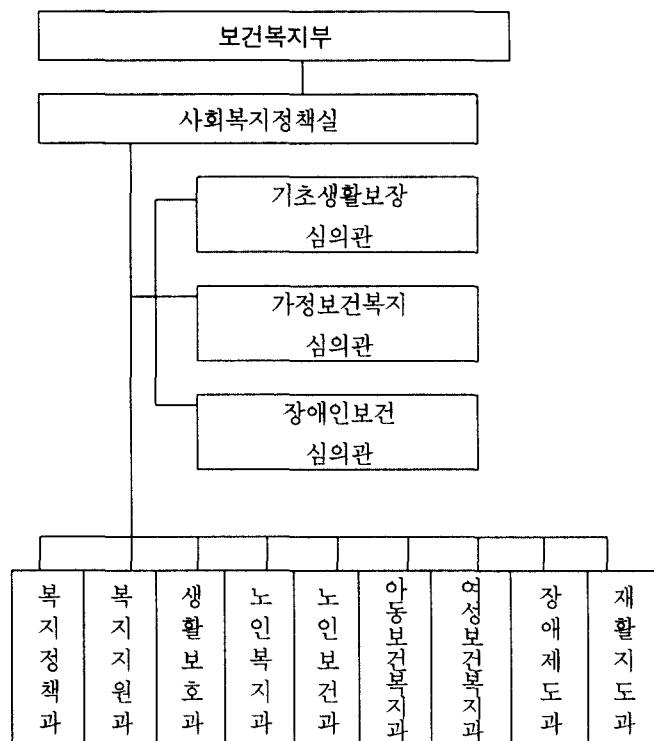
- ① 가정복지사는 가정생활의 다양한 분야, 즉 가족관계, 자녀교육, 자원 관리, 의생활·식생활·주생활·소비 및 경제생활이 복합되어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며, 가정생활의 질 향상을 위하여 유기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가정생활의 제 영역을 조정, 조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 ② 가정복지사들은 가정생활의 주체가 되는 아동, 청소년, 노인, 여성 등의 가족 구성원 개인의 요구에 접근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전체 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가족 전체의 통합성을 추구하는 가정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 ③ 지역주민의 복지 향상에 적극적으로 기여함으로써 건전한 가정문화, 사회문화를 보급, 주도하고 확산할 수 있으며, 지역사회의 특성에 맞는 복지문화 형성을 주도할 수 있다.
- ④ 가정복지사의 활용을 통해서 여성의 취업 분야를 확대시킬 수 있다. 대졸 여성의 전문적인 직종에 취업하지 못하기 때문에 결혼 후 계속적으로 직업활동을 하지 못하는 비율이 높다. 가정복지사 제도는 여성의 노동 시장에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시키고, 대학교육에 투입된 비용을 사회에 환원하는 일이 될 것이다.
- ⑤ 가정복지사를 활용함으로써 경제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다. 가정복지사는 위에서 강조한 것처럼 가족문제에 대해서 개별적인 접근이 아니라 통합적이고 전체적인 접근을 시도하기 때문에 개별적인 접근을 할 때보다 경제적으로 비용 손실이 적을 수 있으며, 잠재적인 문제를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더 효율적이다.

III. 가정복지사 영역 구축을 위한 방안

가정복지사 제도 도입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가정복지사가 활동할 수 있는 가정복지 서비스의 분야를 살펴보자 한다. 이를 위하여 먼저 가정복지 서비스의 공적 전달 체계와 가정복지사의 활동에 대하여 제시할 것이다. 다음으로는 지역 내에서 복지를 담당하는 사회복지관에서 가정복지사가 활동할 경우 가정복지의 목표가 극대화 될 수 있는 분야를 탐색해 볼 것이다. 마지막으로 가정복지 기본법(안)의 제18조에 제시된 가정복지센터를 중심으로 가정복지사의 활동 영역을 제시할 것이다.

1. 현재 가정복지 서비스 전달체계와 가정복지사

우리나라 가정복지 서비스의 공적 행정체계는 1999년 전반까지 외형적으로는 그 실체가 정비되어 있었다. 보건복지부의 사회복지정책실 내의 가정복지심의관제와 그 산하에 가정복지과, 노인복지과, 아동복지과, 여성복지과가 편재되었고, 시·도·군·구에서는 가정복지국, 가정복지과, 가정복지계가, 읍·면·동에서는 사회복지 담당이 가정문제를 담당하고 있었다. 그러나 정부의 구조 조정으로 인해 보건복지부에서 종합적인 가족복지정책의 계획을 담당하였던 가정복지과가 해체되었으며, 사회복지정책실하에 기초생활보장 심의관, 가정보건복지 심의관, 장애인 보건복지 심의관의 체제로 그리고 복지정책과, 복지지원과, 생활보호과, 노인복지과, 노인보건과, 아동보건복지과, 여성보건복지과, 장애인제도과, 재활지원과로 편재되어 있다(그림 1 참조).



출처 : 최연실(1999), 김성천(1999) 재인용

<그림 1> 조직개편 후 보건복지부 가정복지 관련 서비스 전달체계

이러한 편재는 과거의 가정복지심의관 하에 가정을 이루는 구성원(아동, 노인, 여성, 가정)을 포함시킨 편재마저 포기한 것으로 시. 도. 군. 구에서도 가정복지국, 가정복지과가 보건복지국, 사회복지과로 통폐합되었다. 구조조정을 통해 가정복지국이나 가정복지과가 다른 과로 통폐합되고 ‘가정’의 명칭이 사라진 것은 가정복지의 중요성이나 필요성이 없다는 판정을 받은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행정체계 분류는 가정복지 서비스 체계가 포괄적인 정책입안의 구도 하에 마련되지 못하고, 관련 행정 조직이 난립되고, 가족을 한 단위로 고려한 정책의 계획이나 서비스전달 체계를 확립함에 있어 구심점이 없어 일관된 정책을 수립하기가 어렵게 된다. 한국 가정복지서비스 전달체계를 평가기준인 통합성, 지속성, 접근용이성, 적합성, 노력성, 접근성의 측면에서 평가를 해 볼 때, 현 우리나라의 가정복지 서비스는 어느 기준도 만족스럽게 충족시킬 수 없는 여전이라고 볼 수 있다(최연실, 1999: 72-73; 조홍식, 1996: 189; 김성천, 1999).

결국 현재의 가정복지 전달체계의 구성으로 볼 때 개별적이며, 산발적인 서비스 제공이 지속될 것이며, 현재 지향하는 가정복지의 방향으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불가능하게 된다. 가정복지를 보다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해서는 대상별 가족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중앙 행정기관에서부터 시, 도, 군, 구에 대상별 복지 서비스체계를 통합, 조정할 수 있는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기관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보건복지부 산하에 있는 가정보건복지 심의관을 중심으로 가족복지 관련 서비스를 관리 운영하는 하부 체제를 구성하고 체계 운영 및 전문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전문 인력으로서 가정복지사를 투입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된다.

2. 현재 사회복지관 프로그램과 가정복지사

사회복지관은 지역 사회 내에서 일정한 시설과 전문인력을 갖추고 지역사회와의 인적·물적 자원을 동원하여 “지역사회복지”를 중심으로 한 종합적인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사회복지시설을 말한다. 여기서 지역사회복지라 함은 지역사회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지역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주민의 복지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다양한 기관의 조직적이고 전문적인 활동 체계를 말한다. 사회복지관의 프로그램은 가정기능강화를 위한 가족복지, 지역사회보호를 위한 재가복지, 지역사회운동을 위한 재가복지로 분류된다. 사회복지관의 프로그램에서 가정복지사가 담당할 수 있는 분야를 살펴보기 위하여 사회복지관 프로그램의 각 분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표 3>과 같다.

사회복지관의 프로그램을 살펴 본 결과 가정복지사가 가족복지 분야에서 활동할 수 있는 것으로 기대된다. 가정기능 강화를 위한 가족복지 분야는 가족생활에 관한 통합적인 관점을 갖고, 가족생활을 구성하는 인적·물적 자원을 모두 포괄하는 교육과 훈련을 받은 전문가에 의해 기획되고 운영

〈표 3〉 사회복지관 프로그램 운영 방향

분야	내용	프로그램 운영 방향
가족복지 (가정기능강화)	개인이나 가족의 기능강화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심리·정서적 결속력 강화와 가족문제 예방·치료 • 자활의욕 고취와 소득활동 기능 육성, 사회 참여안내 • 어린이와 청소년 건전 육성을 위한 방과 후 교육 및 일탈행동 예방·치료 • 가족의 잠재능력개발과 가족성장 • 가족의 이웃관계 개선, 자원봉사참여 안내 등 지역사회관계 개선
재가복지 (지역사회복지)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요보호 대상자를 가정 또는 지역사회에서 보호하는 확대된 재가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사활동의 안정적 유지 및 가사관리능력 배양 • 사회심리적 지원을 통한 자활의욕고취 및 소외감 예방 • 질병관리능력 배양 및 의료기관 이용 의식계도 • 위기관리 및 예방을 위한 주간보호 및 그룹홈 등 운영 • 건전한 진로지도 및 사회적응 능력배양 • 결연후원, 자원봉사 연결을 통한 생활향상에 기여
지역복지 (지역사회운동)	주민참여를 통한 지역문제 해결과 주민 공동체 의식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사회 직능단체, 주민대표 등이 참여하는 지역복지 위원회 혹은 지역 발전위원회 등의 복지추진 중간집단과 조직 육성 • 주민들이 생활향상과 지역사회문제 예방 및 개선을 위한 분야별 욕구의 공동해결을 위한 주민자로협동 활동의 체계적인 육성에 기여 • 지역사회 자원봉사활동, 이웃돕기 후원활동, 선의품 제공활동이 활성화되어 궁극적으로 지역사회 위화감 해소와 지역사회 통합에 기여

되어야 한다. 가정복지사는 가정학의 배경을 갖고 있으므로 가정복지 실천 방법론에서 미시적 접근을 하는 데 용이하다. 가정복지사는 가족 구성원 개인은 물론 유기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가정생활의 제 영역을 조정, 조화시킬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3. 가정복지센터의 설립과 가정복지사

가정복지서비스 실천방안의 일환으로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는 것이 일차적으로 필요할 것이다. 가정복지 기본법(안)의 제18조에 제시된 것과 같이 가정복지 전담기구 설치의 일환으로서 가정복지 센터를 설치 운영함으로써 가정복지사가 활동할 수 있는 가정복지 서비스 현장을 제공할 수 있다. 박혜인 등(1999)은 가정복지에 대한 종합적이면서도 전문적인 접근이 가능하

도록 주민자치센터 안에 가정복지센터를 설치하거나 한국가정관리학회 산하에 가정복지센터를 과도기적 형태의 구성을 제안하고 있다. 가정복지센터는 가정복지기본법(안) 제정 시에 그 기능과 지위를 지지하는 법규들이 제시(제18, 19, 20조)되어 있다.

〈표 4〉 가정복지센터 프로그램 예

가정복지 서비스 유형	가정복지 개별 프로그램	구체적인 가정복지 서비스 예시
방문 서비스	· 가정 봉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보호 대상 가구의 심리적 · 정서적 지원 · 생활관리서비스 및 급식 · 목욕서비스 제공 · 취미 및 오락 등 여가 서비스 제공
예방 서비스	· 가정생활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족생활주기별 교육 프로그램 (결혼전 준비, 가족형성기, 가족화장기, 가족축소기 등) · 가족생활분야별 교육 프로그램 (성교육, 부부관계, 부모-자녀 관계, 영양, 재정관리, 가정관리 프로그램 등) · 다양한 가족형태별 서비스 (독신, 이혼, 재혼, 편부모, 입양, 맞벌이 가정 등의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
	· 가정생활정보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정생활의 제영역에 관한 인터넷 컨텐츠 구성 · 가족의 기능 향상과 문제예방을 위한 정보지
상담 및 치료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화상담 · 면접상담 · 가족치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녀 상담 : 청소년 비행상담, 진로 상담 · 부부관계 상담 : · 가정관리 상담 : 주거상담, 재정상담 및 생활설계 상담 · 위기가정 대상 상담
보호 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과 후 아동지도 · 보육 및 탁아 · 노인 보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맞벌이 가정 자녀 방과 후 보호 및 지도 · 청소년의 탈선방지를 위한 놀이 및 공부방 · 맞벌이 가정 자녀의 보육 · 위기가정의 자녀 위탁 보호 · 노인 주간 보호 및 일시 보호
정보 네트워크 구성	· 관련기관의 연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 · 민간 · 복지 · 기업 · 의료기관의 연계 · 복지 수혜자와 시혜자간의 결연 · 복지수요자와 상위기관의 연계 · 가정복지센터간 유기적 조직화
	· 판내 가정간의 연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정자원의 재조직화 · 자조 집단 구성 · 또래집단모임 조직 · 공동체 가족 형성
통합적 관리 서비스	· 가정복지 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족형태별 욕구 조사 및 분석, 프로그램 개발 · 가족 구성원의 개인의 욕구 조사 및 분석, 프로그램 개발 · 가족문제 진단 및 서비스 개발
	· 가정복지 전문가 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정복지 업무담당 자원봉사자 교육 · 가정복지사 양성 및 보수 교육

가정복지센터의 운영은 주민자치센터 내에서 가정복지센터는 다양한 형태로 운영될 수 있는데 공무원 신분인 가정복지사, 민간위탁 운영체, 가정학과 교수를 중심으로 하는 지역주민 단체들과 연합하여 책임 경영 기관을 통하여 참여하는 방법들이 있다. 가정복지센터의 조직은 인적 구성체계는 설립주체나 지역의 인구 규모, 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다양한 형태로 형성될 수 있다. 공인숙(1999)은 중소도시 구단위의 가정복지 센터의 인적 구성의 예를 들어 센터장으로 중심으로 소수(4-5인)의 가정복지사가 관리, 연구 및 프로그램 개발, 정보제공, 서비스 제공의 업무를 분담하는 것을 제시하였다.

가정복지센터에서 가정복지사는 가정복지 수혜자에게 교육, 상담, 정보 제공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가정복지센터 종사자를 위해 가정복지관련 정보 및 교재·교구·다양한 매체에 대한 정보 제공과 교육 실시, 가정복지사의 재교육을 실시하며, 가정복지 연구 및 정책 개선을 위한 업무를 담당한다(공인숙, 1999). <표 4>는 가정복지 현장에서 실천할 수 있는 가정복지 서비스의 구체적인 내용으로 이는 가정복지기본법(안)의 제10조의 가정생활교육, 제11조 가정문제 상담, 제13조 가정복지를 위한 연구의 진흥, 제14조 가정복지 실태조사의 실시를 보다 구체화하여 제시한 것이다.

IV. 결론 및 제언

가정복지사 제도 도입의 필요성과 역할에 관한 논의를 위해 가정복지사란 무엇이며, 가정복지사의 활용분야를 모색해 보았다. 이러한 과정에서 가정복지사가 통합성·지속성·포괄성·보편성의 성격을 지닌 가정복지의 전문가로서 적당한 자격과 능력을 갖추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가정학의 궁극적 목표가 개인 및 가족원의 복지증진, 가정생활의 질 향상이라고 한다면 이러한 목표를 보다 실천적인 모습으로 그려내고자 하는 것이 가정복지의 개념화이며 실천의 구체적 방식은 가정복지사가 가정복지 서비스를 통해 가능해 진다고 할 수 있다.

전통적 핵가족의 감소로 인해 가족유형은 다양화되고 그 수는 증가하고 있으며, 가족 구성원 개인 및 가족을 둘러싼 환경의 변화로 인해 가족문제와 가족해체도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이러한 변화 양상들이 가족 위기론의 논의로 이어지기도 하지만 필자는 다른 어느 때보다 개인과 사회를 위해 가족 기능이 강조되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가족의 변화 양상을 이해하고자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가정복지사 제도는 가족문제와 해체를 예방하여 가정의 기능과 건강성을 회복하기 위해 필요하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추진되고 있는 각종 가족 관련 정책들이 가족이라는 틀 속에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문제점을 보완·개선할 수 있는 가정복지사 제도의 도입과 실천을 위해 요구되는 과제

들을 요약하여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기존 가족복지 관련 법령 내에 가정복지사 채용 조항 명시

국가자격제도는 공신력은 매우 높으나 개별사업법에 의해 그 자격을 규정하기 때문에 법령준비가 되지 않으면 인정받기 어렵다는 난점이 있다. 국가가 인정하는 가정복지사 자격제도를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절차는 무엇보다 가정복지사 자격의 취득, 유지, 상실에 관한 조항을 포함 시킨 “가정복지사 자격취득에 관한 법규”를 만들고 기존의 복지관련법인 노인복지법, 아동복지법, 청소년 보호법 등 가정복지사가 일하는 협장과 관련된 법률조항에 “복지 시설을 운영할 경우 가정복지사를 채용해야 한다”는 등의 관련 조항을 삽입시키는 것이라 하겠다. 이를 위하여 가정복지사를 하나의 전문직업으로 인정하는 직업훈련과정과 긴밀하게 연결시키고, 그 내용은 충분히 다양하고 전문인력의 창의성을 제공시키는 방향으로 개발하여 가정복지사 자격제도가 국민의 평생학습, 능력중심사회 정착에 기여하는 것임을 인식시켜 나가야 한다.

2. 가정복지 서비스 전달체계의 확립

가정복지사 제도 도입을 위해서 우선적으로 가정복지 서비스를 총괄할 수 있는 실질적인 체계로 보건복지사무소 또는 가정복지센터(가칭)가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하여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가정복지서비스 체계나 자원의 연결망은 아주 제한적이거나 사적인 자율성에 밀려져 있는 상황이다. 또, 가정복지 서비스가 제공되는 장은 읍. 면. 동. 보건복지사무소에 근무하는 전문요원들과 가정복지담당 공무원들 그리고 사회복지관의 사회복지사, 각종 상담소와 관련 시설에 종사하는 상담원들과 관련직원들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지역사회 일선에서 가족문제를 담당하는 사회복지사나 상담인력들이 가족문제의 예방과 해결에 관련되는 관련기관과 자원에 대한 정보를 매우 제한적으로 갖게 되어 효율적인 서비스의 연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읍. 면. 동의 단위에서 이러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점이 마련되어야 하며, 가족 관련 문제를 예방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전문가인 가정복지사가 전문가로 투입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3. 가정복지사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강화

국가공무원 제도를 통해 가정복지사의 자격과 그 전문성을 인정받기 위해 주민자치센터에서 전문가로서 참여하도록 한다. 기존의 동사무소가 주민자치센터로 전환되었으나 뚜렷한 목적이나 프

로그램이 계획되지 못한 단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미 배출되어 있는 가정복지사들이 지역에서 주민자치센터 운영 프로그램을 제시하고 자원봉사로 참여하여 가정복지사의 필요성을 인식시키고, 지역 내 상설 기관에서 전문가로 활동할 수 있는 영역을 점유하도록 한다. 또한, 현재 사회복지 기관의 전문 인력에 대한 자격기준을 검토한 결과 생활 상담사, 가정 봉사원, 보육교사 등은 가정복지사의 자격을 이수하였다면 충분한 수행할 수 있는 역할들이다. 따라서 공공 및 민간의 사회복지 기관에 가정복지사를 투입하여 가정학적인 접근으로서 가정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적극적으로 개입함으로써 가정복지사의 활동 영역을 확보하고 가정복지사 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알려 나가야 할 것이다.

4. 가정복지 전문가의 다양성 인정

가정복지사 제도 도입과 관련하여 가장 쟁점이 되고 있는 것이 기존 가정복지 관련 자격증과의 충돌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이미 만들어진 자격증을 통해 배출된 인력만으로도 가정복지 관련 업무에 차질이 없으며, 취업하지 못한 인력들도 많이 남아 있는데 유사한 자격증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는가에 대한 비판이 있다. 미래 사회가 인간의 복지를 우선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것으로 전망한다면 복지 관련 전문가의 수요는 확대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다양한 가족 유형이 나타나고, 가족의 복지 욕구 및 가족문제도 다양해지는 만큼 가정복지 관련 전문가도 다양해져야 한다. 전공의 배경이 다르고 가정복지에 대한 접근방법이 다른 전문가들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가정복지에 담당할 수 있다는 방향으로 인식이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5. 가정학 전공자들의 집단적인 노력과 추진

가정복지사는 가정생활 전반에 대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서 가정학 관련 학과 모두를 자격증 취득 가능한 영역으로 포함하고 있다. 가정학 전공자들은 가정학의 정체성 확립 및 전공자들의 진로 등과 관련하여 가정복지사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가정복지법 제정을 위한 특별위원회와 법안을 구성하여 공청회 개최 등의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활동들이 가정학의 전반에서 단합된 힘으로 추진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단결된 힘이 가정학 전공자들에게 미미하다고 할 수 있다. 가정복지사 제도 도입은 가정학 관련 전 학과가 단합하여 진취적·적극적인 노력을 하지 않으면 불가능할 일이다. 따라서 가정학 전공자들인 학부생, 석·박사, 관련학과 교수님들은 가정복지사 제도 도입이 가정학의 정체성 및 존립과 직결되는 일차적인 문제라는 점을 직시하고 적극적인 참여와 성원을 아끼지 않아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공인숙(1999), 가정복지 서비스 전달체계의 모형 탐색,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7(3), pp. 217-228.
- 김명숙(1995), 가족복지서비스 기능강화(I), 한국적 복지모형의 정립과 정책방향, - 단기정책 연구(II)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p. 154-167.
- 김성천(1999), 한국 가족복지정책의 재조명: 문제점과 개혁방향의 모색,
- 김혜란·장경섭(1995), 가족복지서비스 기능강화(III), 한국적 복지모형의 정립과 정책 방향 -단기정책 연구(II)-,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p. 181-187.
- 박혜인·유정순·윤경자·송혜림·이승미·이완정(1999), 가정복지사의 《주민자치센터》 참여 방안에 대한 연구 -「가정복지센터」 운영을 중심으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7(4), pp. 185-190.
- 서울특별시(2000), 사회복지관 운영안내.
- 송혜림(1999), 가정복지의 개념에 대한 가정학적 관점의 정립, *한국가정관리학회지* 제24차 총회 및 학술대회, “21세기 가정복지의 지향과 사회적 실천” : *한국가정관리학회지*.
- 임정빈·김양희·이기영·홍형옥·계선자·이정숙·김순미(1997), 가정복지서비스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5(3), pp. 163-180
- 이승미(1999), 가정복지사의 역할과 가정복지서비스의 실천방안, *한국가정관리학회지* 제24차 총회 및 학술대회, “21세기 가정복지의 지향과 사회적 실천” : *한국가정관리학회지*.
- 최성재(1994), 복지국가와 가족, *한국가족학회 세계가정의 해 기념 학술발표 대회*, “복지 국가와 가족” : *한국가족학회*.
- 최연실(1999), 한국가정복지정책과 서비스 전달체계의 현황 및 평가, *한국가정관리학회지* 제17권 4호, pp. 99-118.